

우리는 왜 문화 페스티벌을 찾는가?
헤이리 판 페스티벌과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참가기



● '크로스오버 예술축제'를 지향하는 '헤이리 판 페스티벌'과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즐거운 문화 축제'인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매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린다.

주머니는 가볍고, 시간은 넘치던 학생시절 '문화' 혹은 '예술'은 삶의 한 부분으로 다가왔다. 영화관은 밥집보다 더 친근해졌고, 특별한 목적이나 부담을 갖지 않고도 미술관에 들러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됐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밤열차를 타던 설렘은 어느덧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같은 문화축제나 행사를 찾고 즐기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변해왔다. 얼마 전에도 '크로스오버 예술축제'를 표방하는 '헤이리 판 페스티벌'과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축제'를 지향한다는 '서울와우북페스티벌'에 다녀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 페스티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꾸며질지, 어떻게 열릴지 궁금한 마음 반 설렘 반을 안고서...

여전히 준비 중인 '아름다운 불협화음, 즐거운 협화음'

'예술인 공동체 마을'인 헤이리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판 페스티벌'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종합문화예술축제는 점에서,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흥대앞 견고 싶은 거리의 성격을 십분 살린 재미있고 알찬 내용의 '책 축제'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통일동산 부근의 너른 공간 헤이리에서 한 달 가까이 열린 판 페스티벌과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 흥대 견고 싶은 거리의 주차장 공간에서 열린 '와우북페스티벌'은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전혀 다른 종류의 문화축제다. 따라서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무모하다 싶지만, '즐거움 경험을 주는 문화예술행사'라는 점, '문화예술 창작자와 문화예술 소비자가 만나는 소통'이라는 점에서 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는 통칭 '예술인 마을'이다. 경기도의 전래 동요 '헤이리 소리'에서 이름을 땄다는 이 마을은 미술·문학·영화·건축·음악 등의 예술인 370여 명이 '회원'이 돼 만들어가고 있는 특별한 공동체다. 비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80여 명에 불과하고 아직도 여기저기 공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독특하고 예술적인 건축물,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모여 있어 평소에도 '구경'하러 오는 방문객들이 많다. 헤이리 마을의 회원들이 '국제 크로스오버 아트 페스티벌'을 표방해 준비한 '헤이리 판 페스티벌'은 사실 2007년에 정식으로 열릴 예정인 축제라고 한다. 2007년 축제의 예고편인 이 페스티벌의 정확한 명칭을 말하자면 '프레 판 페스티벌 2006 Pre_Pan Festival 2006'이다. (작년에는 '판, 판, 판'이라는 이름으로 페스티벌이 열렸다)

'헤이리 판 페스티벌'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헤이리라는 공간과 닮은 '조화로운'이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모여 하나의 예술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곳처럼, 이 페스티벌 역시 상이한 성격을 가진 예술장르들이 서로 어울려 전혀 다른 제3의 어떤 것을 창조하고 있었다. 오죽했으면 '아름다운 불협화음, 즐거운 협화음'이란 모토를 내걸었을까 싶은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예술장르들이 한 무대 위에서 뒤섞이고 있었다. 재즈와 클래식 만남은 '크로스오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파노라믹 사중주' 같은 경우 영상·음악·설치미술·퍼포먼스·연극·무용이 만나 이뤄지는 예술작품이었다. 그런데, 이 페스티벌을 찾아온 모든 이들이 나 같은 예술체험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전시행사는 페스티벌 기간 내내 관객들을 맞았지만, 공연행사의 경우 특정일에 맞춰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프로그램이나 공연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변경된 일정을 확인하지 않고 찾아온 이들은 전시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옥의 티, 헤이리에서 헤매리?

전시행사인 '양상블 판'은 다양한 주제를 두고 열렸는데,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첨단 기술'을 통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다. '남량특집 호러 스페셜'전은 전시실 안에 들어간 관객이 센서를 건드려야 '소리'와 '움직임'이 발생했고, 'Finding Any Landscape in the room'전은 전시회를 조경과 관련지었을 뿐만 아니라 '만져도 되는', '만지면 형태가 변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그 외에도 소리를 시각적인 형태로 경험하게 하는 작품 등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작품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공간과 내실 있게 채워진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헤이리 판 페스티벌'을 둘러보는 내내 무언가 허전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떠올려보니 그건 바로 '흥겨움'이 부족한 축제였기 때문이었다. 축제로 모험지기 유쾌하고 재미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은 인파 때문에 든 생각이었을까? 그것보다는 안-밖의 경계를 허물지 못한 페스티벌의 진행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이지 않았을까? 페스티벌을 연 헤이리 예술가들은 장르의 경계를 허문 예술작품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의도했겠지만, 다른 관객들이나 내게 헤이리는 여전히 '구경하는 곳'이었다. 독특한 건물에 마음을 빼앗겨 기념 사진 찍기에 바쁜 사람들이 전시의 내용보다는 '헤이리'를 방문한 기분에 도취되는 것을 비난할 수 있으랴. 독특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오히려 페스티벌의 진면목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에 입맛이 씹쓸했다.

아쉬운 부분은 또 있었다. 지리적 특수성이라면 특수성인 '접근하기 어려움'. 대중교통편이 한정된 것도, 막상 도착해서 행사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지도와 안내판은 있지만, 넓고 황량한 공간에 드문드문 자리 잡은 건축물들 사이를 다니다 보니 페스티벌을 보러 다니는 건지, 산책을 나온 건지 잠깐 헷갈릴 정도였다. 명색이 '문화예술축제'인데 인포메이션센터나 안내원을 찾기 힘든 것은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장에서 만난 주인공, '책'

두 번째를 맞는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대-건고 싶은 거리'의 주차장에서 열렸다. 다양한 출판사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인도를 양 옆에 끼고 부스를 만들어 출판사별 행사를 진행하며, 근처의 놀이터나 카페 공간을 활용해 작가와의 대담, 책 만들기, 주제 토론, 동화 일러스트 전시 등 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헤이리 판 페스티벌'이 언론을 통해 자주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에 비해,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인지도가 꽤 높은 편이다. 홍대라는 지역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연령대로 본다면 문화에 민감한 젊은이가 많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게다. '주차장'이라는 익숙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공간을 색다른 형태와 의도로 구성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우연히 참여할 수도 있다. 게다가 '책'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그리고 대중적인 문화 그 자체가 아니던가. 솔직히 일 년에 책 한두 권 읽는 처지라고 해도, 취미란에는 '독서'라고 써넣는 것이 우리네 정서고 미덕이니까.

'책 축제'라는 말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책이야말로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을 담고 있는 종합예술의 집합체다. 인문적인 지식, 자연학 지식, 예술에 대한 이해, 요리와 건강에 대한 정보, 외국어와 우리말, 공상의 세계 등 책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상의 많은 곳이며, 지식이며, 지혜다. 그뿐이라, '베스트셀러'를 통해 당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도 있으며, 나오는 책의 종류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다. 고전을 통해서도 변함없는 인간의 본성과 바람직한 이상을 헤아려 볼 수도 있다.

짧고 즐거운, 그러나 가벼운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단순했다. 출판사별 부스에서 진행되는 거리 도서전과 작가사인회, 이벤트 등의 행사와 근처 카페에서 열리는 저자와의 만남, 강연, 낭독회 등의 문화행사, 놀이터에 만들어진 판타스틱 서재, 책 읽기 좋은 자리 등에서 함께 책 읽는 '참여' 프로그램부터 '책 놀이터', 책 만들기 체험, 사고파는 와우 책시장 등이 오밀조밀 작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행사 내용의 대부분이었다. 페스티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고, 카페에서 열리는 대담이나 강연을 제외한 부스 내의 프로그램을 다 둘러보는 데 넉넉잡아 두세 시간이면 충분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웠다. 거창한 주제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책을 주인공으로 놓는 자발적인 문화행사라는 자체로도 충분했다.

큰 규모의 페스티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철역에서부터 가이드북과 지도를 나눠주는 간이 인포메이션 센터가 설치되어 초행인 사람도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한 점은 인상적이었다. 그뿐 아니라 행사장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과 애드벌룬이 띄워져 있어 먼 곳에서도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부스가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에는 페스티벌 상황실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스티벌의 완성판은 아니었다. '책 파는 행사' 이상의 주제나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듯하고, 부스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가 새로운 것 없는 '예상 가능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 같다. 덧붙여 출판사별 부스에서 숨은 걸작이나 베스트셀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일도 즐겁지만, 책 만들기 행사나 책 놀이터 같은 참여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마음을 건드리는 다양성 있을까?

이렇게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은 두 가지 페스티벌을 보면서, 문화·예술축제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건 없다. 아무리 '종합예술'을 담고 다양한 내용으로 꾸민다 해도 모든 이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문화축제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문화축제가 '보는 만족' 이상의 의미를 대중에게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접근과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헤이리 판 페스티벌'은 공간의 특수성과 헤이리의 인적 구성원들의 개성을 살린 기획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멋진 문화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판 페스티벌에서 시도한 많은 크로스오버 예술작품들이 단지 '당신들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배려와 소통의 네트워크가 좀더 절실한 것 같다. 작지만 내실 있는 책축제로 자리잡아가는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경우, 일상 속의 문화축제, 지역 내의 문화축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앞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와 내용,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문화축제는 지금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규모나 내용뿐 아니라 주제나 소재, 방식에서도 좀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각각 다른 크고 작은 문화축제들이 365일 내내 마치 일상처럼 열리고 취향과 지향에 따라 '즐거운 소통'을 원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삶에서 문화예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

문이다. 문화예술이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어 가면 갈수록 어렵고 일방적인 예술보다는 대중의 눈높이에서 소통과 교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예술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중에는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형태의 예술 경향도 보인다. 관객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으며, 이런 관객들의 경향을 알고 있는 예술 창작자는 더 이상 자신의 창작의도를 고집하며 대중을 계몽하려 하지 않는다. 예술의 주제가 '일상'과 가까운 경우도 있고, 예술이 존재하는 장소도 날이 갈수록 문턱이 낮고 열린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내가 관객으로 페스티벌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느 하루, 어느 계절에 특별히 마련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향해 열린 작가와 작품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기다림만큼이나 감동받을 준비가 된 나를 보다 열어내기 위해서다. 이 만남에는 서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 과연 나만의 외사랑일까?

글쓴이 | 강이경

고양이와 인디밴드의 음악을 좋아하며, 여행과 그리고 이 원고에 쓴 것처럼 크고 작은 축제와 전시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한다.